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차고 넘쳐서는 안되나니

귀부계영배(龜趺戒盈杯)

조선 후기 호남의 실학 4대가 중의 한 사람이자, 한국의 에디슨이라 칭송받는 규남(圭南) 하백원(河百源)은 1811년에는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보다 51년 앞서서 동국지도(東國地圖)를 만들었고, 자명종(自鳴鐘)·계영배(戒盈盃)·항흡기(缸吸器)·물펌프 같은 시대를 앞서는 물건들을 발명했다.



거북이 받침을 놓은 '귀부계영배'

중국 춘추시대의 춘추오과(春秋五霸) 중 한 사람인 제(齊)의 환공(桓公)이 군주의 올바른 처신을 위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경계하며, 늘 곁에 놓아 마음을 다듬었던 유좌지기(宥坐之器)라 불렀던 그릇(敝器)을 계영배라 한다.

계영배는 사이펀(siphon)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잔속에 관을 만들어 그 관의 높이까지 액체를 채우면 새지 않으나, 관의 높이보다 높게 액체를 채우면

잔 짓을 하고, 산란하며, 실수를 연발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나온다.

그와는 반대로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소화신(小化身)이라 불리우는 진묵대사(震默大師)는 곡차(穀茶)를 즐긴 기록이 많지만 실수했다는 기록은 없으니, 술을 먹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면, 당당히 성인(聖人)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

옛날 충청도 어느 산사에 한 행자(行者)가 가을추수가 끝나, 산 밑 마을에 소작농(小作農)에게 소작료를 받으러 갔다가, 마침 농부의 환갑잔치라 나이 어린 기생을 불러다가 지화자를 부르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막걸리를 흥뻐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곡차라서 한 잔 해도 괜찮다는 농부의 유혹에 휘말려, 행자는 달콤한 탁주를 얻어주려 들이키다가 잠이 들었다. 한참 잠이 들었다가 어슴프레 취한 채 깨보니, 기생이 좋고 있는 모습에 성욕이 일어 났었다. 정신이 들어 절로 돌아가려고 문지방을 나서는데, 섬돌아래 놓던 약병아리를 밟아 죽었다. 잠시 후에 죽었던 농부의 부인이 약병아리를 훔쳐서 보지 못했느냐 묻자, 열른 품속에 감추고는 못봤다고 거짓말까지 하게 됐다. 결국 이 행자는 한 잔 술 때문에 오계(五戒)를 모두 어기게 되었다.

술 한 잔 잘못 먹었다는 것은 마치 눈 많이 쌓인 높은 산의 주벽 만만 한 눈 못지가 굴러 내려와 큰 눈덩이가 되어 마을을 덮칠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실로 경계할 일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불교음악 · 춤으로 한류열풍 앞장서다

인터뷰

세계 3대 인명 사전 등재된 법현 스님

유럽, 북·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에 불교예술의 총화인 영산재를 알리는 법현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한국음악과 교수)이 최근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법현 스님의 속명 'Kim Eung-ki(김응기)'는 ABI 미국인명정보(2012년), IBC 영국캠브리지국제인명센터(2011~2012년), 미국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2012)에 기록됐다. 이 3대인명사전은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거나 업적을 이룬 학자들이 주로 등재되는 곳으로 한국 스님이 3곳에 모두 등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현 스님은 "작년 7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영산회상-니르바나' 공연을 개최해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세계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인명사전에 등재된 것 같다"며 "한국의 여러 불교 종단을 대표해 이름을 올려 불교문화예술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려 한다는 사명감에 어찌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스라엘서 '평화사절단' 역 토티히 해내

태고종 영산보존회(회장 일운)는 2011년 7월 10~14일 이스라엘 카미엘시(市)의 '카미엘 인터내셔널 댄스 페스티벌' 조직 위원회의 초청으로 영산재를 선보였다. 카미엘 인터내셔널 댄스 페스티벌은 단일 무용행사로는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문화행사로 영산재 공연은 이스라엘TV를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생중계됐다.

영산보존회의 나흘간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3만 관객을 수용하는 카미엘 야외 대극장은 유료 티켓임에도 불구하고 전석이 모두 매진됐다.故 파바로티,故 마리아칼라스 등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도 대관하려면 몇 달을 대기해야했던 텔아비브 오페라하우스도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공연을 본 외신들은 "수행자의 나비춤이 서양인을 감동시켰다" "동양의 붓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열화미소를 건넸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법현 스님은 "달라이 라마 등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불교를 접한 서구인들도 '선(Zen)'이나 명상은 알지만 불교예술과 문화는 잘 모른다. 스님이 불교정신을 직접 춤과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 영산보존회 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팔레스타인에 5년간 남치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이스라엘 살리트 병장을 자국으로 귀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법현 스님은 2009년 9월 30일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세계 각국을 돌며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고 있다. 사진은 고려 복식을 재현한 바라춤

했기 때문이다.

법현 스님은 "살리트 병장의 부모를 만나 귀환을 발원하는 영산재공연을 시연했다. 이를 본 이스라엘 국민들은 '한국의 승려들이 나서 평화를 강조하며 병사를 구하자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뭐하고 있냐'면서 살리트의 귀환을 촉구했다"며 "이후 3개월 만에 살리트 병장과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1027명의 포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양국이 합의를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영산재 팀과 태고종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의 공연이 기록제가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음악과의 인연

강원도에서 태어난 법현 스님은 9세에 출가했다. 스님의 아버지와 4형제도 모두 출가했다. 스님들의 법패나 불교의식을 어릴적부터 보고 듣고 자란 법현 스님은 불교음악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졌다. 9세인 1974년 불교음악을 배우기 위해 법패의 최고승이라 불리는 송암 스님이 있는 서울 봉원사로 출가했다. 그곳에서 15년간 송암·일운·구해 스님에게 법패의 기초부터 고급까지 사사했다.

법현 스님은 "단계별 법패는 각계 영산 수록 등 5단계로 이뤄져있는데 영산재에 만 373곡이 들어있다. 이 밖에 나비춤 바라춤 법고 춤 등 27가지의 모든 무용을 배웠다"며 "송암 스님은 항상 '실기를 배우면서 수도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스님은 동국대와 원광대에서 불교음악 이론을 연구하고 1997년 최연소로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로 임용

해외 공연 3만 관객 매회 만석

세계 50여 개국에서 호평 받아

영산재 시연해 이스라엘 병장 귀환

단순 포교 아닌 동양정신 담은 예술

했다.

법현 스님은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불교음악과 무용을 이론화 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 불교음악 및 무용 관련 4권의 저서와 43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송암 스님의 법패와 법현 스님의 법패를 각각 18장, 15장으로 제작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해외박물관 200여 곳에 보냈다. 또 200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악보인 '각필악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기도 했다.

법현 스님은 이에 그치지 않고 KBS방송국 연출전문가인 김영령 교수와 김향금 창원대 무용과 교수와 함께 법패와 무용을 무대에 결합시키는 시도를 했다. 그 결과 2001년부터 국립극장에서 고려시대 불화, 조선시대 감로명화에 나타난 불교무용을 재연해 호평을 받았다. 이후 독일 덴마크 미국 중국 일본 등 50여 개국에 초청돼 불교문화공연을 주관하면서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법현 스님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불교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케이팝 열풍으로 한국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유대인, 가톨릭 신부들도 불교를 배우려고 한다"며 "앞으로는 무용 미술



고려·조선 복식을 재현한 바라춤 군무

단청과 같은 불교예술을 통해 한국의 정신을 알리려 한다. 단순한 포교활동이 아닌 동양의 정신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산재 인간문화재 보유자 더 늘어야"

불교문화와 영산재 공연이 전 세계에서 환영받고 있지만 법현 스님은 영산재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1명뿐이라 걱정이이다.

스님은 "현재 영산재 관련 중요무형문화재는 구해 스님 밖에 계시지 않다. 보유자 1명으로는 법패와 영산재를 10여 년 넘게 이수했으며 공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109명 스님이 군무형태로 등장하는 영산재를 지속적으로 이끌려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전수조교인 일운·기봉 스님의 보유자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현 스님은 또 "해외에서는 영산재 공연에 관심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후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선사 스님들의 유품을 보관하고, 불교음악·무용을 체계적으로 전승하는 기관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주프로그램 CD 명리보감

최고의 역학프로그램

1. 명리작명판
사주명리 + 작명 + 궁합 + 택일 + 고객관리
2. 명리통합판
(1.명리작명판) + 주역,육효 + 재미두수 + 양택
3. 기문통합판
(2.명리통합판) + 기문 + 육임 + 구성학 + 현공

사주명리, 육효 동영상강의DVD제공하여 초보자도 공부하며 사용가능.

NAVER 통합검색 명리보감 검색 등 검색하세요. www.goodcycle.com

명리보감 역학연구소
☎ 031)493-3581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뵈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뵈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쓱쓱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④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⑤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4]1943-6882, 010-3813-4443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